

제2회 중국
조선족수필문학상

수상작품집

제2회중국조선족수필문학상 심사위원회



민족출판사

제2회중국조선족수필문학상
수상작품집

제2회중국조선족수필문학상 심사위원회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第二届中国朝鲜族随笔奖获奖作品集 / 第二届中国朝鲜族随笔奖评委会编. —北京: 民族出版社, 2006. 4
ISBN 7-105-07617-8

I. 第... II. 第... III.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29201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北京市艺辉印刷有限公司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4月第1版 2006年4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7 字数: 148千字

印数: 001-800册 定价: 18.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제2회중국조선족수필문학상 심사경위 및 심사평

중국 민족출판사 조선문편집실과 한국 《수필시대》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 한민족문화교류협회가 후원하는 제2회중국조선족수필문학상은 짧은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자천, 타천으로 도합 55편의 후보작들이 심사위원회에 교부되었다. 주관기관에서 위임한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후보작들을 대상으로 진지하게 심사해 립하였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을 정하고 꼼꼼하게 작품들을 읽은후 일차적으로 심사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먼저 우수상으로 33편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한 작가의 작품이 2편 혹은 3편이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서는 아깝지만 1

인 1편의 원칙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토대우에서 우수상을 대상으로 다시 2차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갈수록 좁혀졌으며 여러 번에 걸친 반복적인 토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결과적으로 리진화의 《당신의 날개》와 한영남의 《혹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영애의 《당신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찾으셨나요?》 이 세 작품에 의견이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측과의 진지하고 반복적인 협의와 토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리진화의 작품에 금상을, 한영남의 작품에 은상을, 그리고 현영애의 작품에 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리진화의 《당신의 날개》는 아버지와 딸사이의 혈연적인 사랑을 《날개》를 매개항으로 하여 진실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탄탄한 문장력, 과장된 감정표현 없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솜씨, 묘사의 대상에 혼을 불어넣는 재치 그리고 특히 수필에 립하는 성실한 자세가 돋보인다.

한영남의 《혹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는 수필을 이렇게 쓸수도 있구나 하는 선례를 남긴 파격적인 작품이다. 41개에 이르는 거듭되는 질문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저자가 겪었음직한 구체성을 확보하고있기때문일 것이다. 시적인 함축미와 실험정신을 높이 사게 되는 작품이다.

현영애의 《당신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찾으셨나요?》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가는 과정으

로 대치시킨 작품이다. 자신의 이야기와 책속의 이야기를 비교적 적절하게 혼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순탄한 언어로 무난히 풀어간 여유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오늘날 우리 수필문학의 현 주소를 대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고 판단된다.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기를 기원한다.

제2회중국조선족수필문학상 심사위원회

2006년 4월 5일

차 례

■ 제2회중국조선족수필문학상 심사경위 및 심사평	1
----------------------------	---

□ 금상수상작

리진화 〈당신의 날개〉	2
· 수상소감 · 바람부는 나무	11

□ 은상수상작

한영남 〈혹시 사랑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15
· 수상소감 · 수필의 매력	19

□ 동상수상작

현영애 〈당신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찾으셨나요?〉	22
· 수상소감 · 엄마의 외딴 신발과	
나의 외딴 신발	28

□우수상수상작(가나다라 순)

강효삼	《꽃씨삶》의 위안	32
김경선	나를 거절해버린 서장	36
김동규	형 부디...	39
김순희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43
김점순	밥상	50
김희자	눈이 내리면 하얀 추억 떠오릅니다	57
남춘애	땅에 대한 사색	62
남호손	원일 아침 수상록	70
남영도	가을, 성숙, 녀자 그리고 ...	79
류원무	중국장기와 조선장기	86
리선자	아버지를 그리며	93
리선희	겨울산행과 겨울나무	100
리혜선	유토피아꿈	109
리영애	머리는 지혜	116

박경식	그리움도 사랑이에요	122
박미옥	뮤직의 가락	125
산 천	술과도소리	130
서정순	김치, 《썬차이》 콤플렉스	134
신영애	사랑의 차원	142
심매화	이런 남자와 만나고싶다	152
장정일	보름달	157
조광명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너는 그렇게 한다	163
주향숙	풍경으로 바라볼수 있다면	168
차옥순	오타	172
최균선	석양에 태운 상념	178
최 철	도형으로 보는 인간은...	184
최영옥	엄마가 되는 리유	188
허무궁	아침의 반달	196
양은희	꽃은 지고 욕망은 남고	201
오태호	유머의 색조	206

금 · 상 · 수 · 상 · 작

당신의 날개

리 진 화



1978년 길림성 서란현 출생.
《스포츠신문》 편집, 기자, 연변작가협회 회원.
2004년 연변문학 운동주문학상 수상.
소설, 수필 등 30여편 발표.

당신의 날개

리진화

당신 눈가의 주름살을 타고 당신의 그윽한 눈동자 그 물결속에 뛰어들면 잃어버린 저를 되찾을수 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당신 머리가 백발이 되었으면서도 아직 저를 예전의 철부지로 착각을 하시는데 같습니다. 륑유(陆游)를 초과한답시고 하루에 시를 일여덟수씩 써내던 부끄러운 저를 아버지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스스로도 잊어버린지 오랜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거기 웃고 계시실 때 어릴적 시인이 되고싶었던 저였음을, 당신의 천사였던 저였음을, 그렇게 날개가 있던 저였음을 깨우칠수가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초가집 지붕아래 흰 신발을 끌고 뛰어다녀도 무진장 힘이 솟던 시절, 누렇게 낡은 군대가방에 따끈따끈한

누룽지 한덩어리 넣으면 세상 부러움없던 시절, 산이나 하늘도 단숨에 날아넘을것 같이 늘 기고만장하고 자랑에 넘치던 시절 저의 어깨우에 축복처럼 솟아있던 날개! 이제 빛나던 날개는 어디로 가고 멀쩡하게 비여있는 몸통이 하나가 저기 저 거울에 비쳐있을까요?

살면서 가끔 비참해지는 날들, 아무것도 아닌것에 풀이 죽고 기가 꺾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것이 구경 무엇이냐는 곤혹때문에 우울증에라도 걸릴것 같은 요즘, 세상 하나 아득히 멀어져가고 우주를 스치는 바람이 갑자기 낮설어집니다.

화근은 저보다 잘 나가는 친구가 있다는데서 온것 같습니다. 딱히 어느날부터 그 자비심이란 정서가 모여지기 시작했는지 알길 없지만 언젠가 무심결에 얻어들은 잘 나가는 친구들의 소식이 그렇게 괴로울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행복한 사람들을 향해 내심 기뻐하고 축복해주고싶은데 웃는 얼굴에 어느새 경련이 일고 그 웃음은 자못 어색해있습니다. 친구를 향한 거부반응,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낯설지요?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면 그동안 무심히 스쳐버린것이 너무 많습니다. 늘 곁에 존재하면서 잊고 산것들, 백화점 매대를 채운 현란한 장신구나 멀리서부터 범상치 않은 빛을 뿜으며 달려오는 고급차량들, 동화속의 궁궐처럼 환상적으로 일떠서는 요즘 아파트들...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것, 그것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것, 그런 물질적인것이 없어도 언제까지든 불편함이 없이 평화로이 살줄 알았던것이 어느날 아침 눈을 뜨고 살피니 그 모든것은 어느

새 제 자존심을 위협할수 있는 근처까지 와있습니다.

핸드폰이 왔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오고 노트북이 왔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오고 승용차가 오겠지요. 그다음 또 무엇이 올가요? 그리고 또 무엇이 갈가요? 꼭 필요한것이 아니래도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한 귀엽고 화려한 그것들을 위해 저는 제 일생을 걸고 허둥지둥 뛰여야만 합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도 욕심 많은 사람이 되고 같지 않은 일에도 쉽사리 비참해지는것일가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온 집 식구가 웃으며 행복하게 살지 않았나요. 텔레비존도 없는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무슨 웃음이 그렇게도 많이 넘쳤을가요? 그 시절이 외려 그림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딸은 이제 서툰이 다 되여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량이 분주히 오가는 도심에 서면 무작정 당황해지고 울음보를 터뜨리고싶습니다. 왜 점점 겁이 많아지고 무서운것이 많아질가요? 자칫하면 넘어져 다칠것 같고 조금만 느슨해져도 세상이 낮설어질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있어도 땅이 흔들리는듯한 불안, 무엇으로 살아남으며 무엇으로 승부할가요? 이제 기고만장한 젊음은 없습니다. 목소리도 잦아들고 고개도 숙여집니다. 이럴 때 가난해도 행복할수 있게 혼자 심심풀이로 당겨보는 악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야 알아보든말든 사유라도 폴떡폴떡 뛰는 해피한 그림으로 스케치북 하나 채울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그마한 띄창으로 햇빛이 무더기로 쏟아져 노란 장판 위에 봄빛이 마구 뒹구는 날이면 서랍안에서 자그마한 하모니카 하나 꺼내여 신나게 곡을 연주하던 아버지 얼굴이 떠

오릅니다. 하모니카 불기 참 좋아하셨지요. 아버지의 어깨는 하모니카가 연주하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신나게 오르내리고 얼굴에는 기쁨과 환희가 넘칩니다. 그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직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자전거 짐받이에 앉아 우체국으로 가던 일이. 엄마가 밥상을 다 차려놓았는데 밥도 먹지 않고 콩다리연필을 꼭 움켜쥐고 저는 글을 쓴다고 《유세》를 부렸지요. 그럴 때마다 대견스레 내려다보며 웃던 아버지, 이제 다 쓴 글을 차곡차곡 접어 봉투에 넣으면 아버지는 저를 자전거에 태우고 우체국으로 가셨습니다. 신나던 아버지의 휘파람소리, 아버지가 사주신 구운 고구마 한덩이, 아, 그때는 정말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는데 말이죠.

어릴 때 긴 막대기 하나 주어들고 온 트랙을 뛰어다니며 거위를 쫓았습니다. 꺾꺾거리며 정신없이 달아나는 거위들의 날개가 꼭마치 헬리와 같더군요. 뻗뻗하게 꺾 펴쳐진것이 정말로 멋지고 힘이 있어보였어요. 저는 그것이 현기증이 나도록 좋고 욕심이 났습니다.

그것은 크면 자연히 잊고 버리게 되는 그런 색바랜 꿈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는 날개가 있는 모든것이 부럽습니다. 날고싶어요. 남들처럼 앞장서 달리지 못하고 조금 뒤떨어져도 좋을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갑갑한 일상을 뚫고 화려하게 솟구칠수는 없을가요? 가을의 빛나는 호수처럼 진정 평화로운 마음의 안녕을 되찾을수는 없을가요?

차갑고 딱딱한 세상의 벽이 웬지 모르게 손가락끝에 부딪쳐오는 날이면 이 딸은 어쩔수 없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당신이 저에게 무엇인가 해줄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끊임없이 당신에게 구원의 눈길을 던지고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러나 지금 어쩔수 없이 점점 약해지는 당신을 봅니다. 맥도 없어지고 힘도 약해지고 종래로 병원출입을 모르던 당신답지 않게 이제는 여기저기 곧잘 아프기까지 하는 우리 아버지.

지난번 고향 들리셨을 때 많이 힘드셨지요. 몇년만에 귀국하여 어찌다 고향 들리셨는데 엄마의 호구문제로 정말 속고생 많으셨지요. 출국중인 엄마를 몇년전 돌아가신 큰어머니로 잘못 알고 호적부에서 엄마 이름까지 지워버린 전혀 근거도 없이 저지른 그자신들의 저질적인 실수를 권력도 힘도 없으신 당신에게 무작정 들썩을 때 정말 많이 당황하셨지요. 우연히 고향에서 전해들은, 당신을 만났던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던지 당신은 모르실겁니다. 그 사람이 그랬죠. 멀리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마침 러비를 챙길 일이 생겼다고. 당신들이 피땀으로 번돈은 결국 그렇게 한심한 인간들의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되었던것입니다. 어둡고 지지분한 구석을 드러낸 고향이 그때 갑자기 얼마나 짜증나고 싫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불의앞에 어쩔수 없는 저자신의 무능함에 화가 났고 그리고 쉽사리 당하고 물러앉는 당신에게도 솔직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아무 잘못된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긴장해하고 당황해할 당신의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더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피와 땀이 절은 돈을 쥐여주면서도 고맙다고

하셨죠? 아버지, 당신은 늘 그랬습니다. 따지기를 싫어하고 다투기도 싫어했지요. 당신이 피해를 볼지언정 말입니다.

작년에 당신은 크게 다치셨어요. 저녁무렵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했지요. 누군가가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는 소리를 듣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차거운 땅바닥에 몇시간이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두손으로 겨우겨우 몸을 지탱하며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지요. 어쩌면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다 생길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종래로 피해란건 줄줄 모르는 아버지, 농사철에 호미나 삽 한자루 빌리는 일도 무작정 엄마에게 맡길 정도로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어진 아버지가 아니셨나요? 당신을 태운 택시운전수나 저의 집으로 광천수를 메어나르는 배달부아저씨에게도 아버지는 까닭없이 미안해하시는분이었습니다. 오랜 군인으로서의 씩씩하던 당신이, 자전거 짐받이에 태워 저더러 하늘을 날게 하시던 당신이 바닥에 쓰러지시다니요? 그때 저의 몸우에, 분명히 날개가 돋았던 그 자리에서 뼈를 깎아내는 아픔과 함께 툭 하고 그대로 부서지고 깨여지는 날개의 조각들을 보는듯싶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당신의 딸에게 그날은 그야말로 하늘전체가 어두운 날이었지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밤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도망을 간 사람에게 그야말로 지독한 저주를 퍼부었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웃고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향해 욕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당신을 피흘리게 하고 도망친 낯선 사람마저 당신은 밋지가 않는가봅니다. 어쩌다가 당

신의 자식이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사천리하고 달려가서 뒤통수를 깨끗이 하고 자식 대신 용서까지 빌면서도 말입니다.

가끔 아버지가 정말로 강한 남자였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적 자식앞에서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될수록 좋은 모습만 보여주며 나름대로 굳세게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번씩은 다른 사람들앞에 호통도 칠수 있고 자식인 우리들이 힘센 아버지를 믿고 한두번 쯤 지긋은 장난이라도 해볼수 있게 의젓한 당신이기를 바라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원래부터 누구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애당초 이 세상과 무엇을 뺏고 다투기를 포기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편해보이는가봅니다. 머리로 일찍 세고 주름살도 남들보다 빨리 늘어나는데, 정말 그렇게 편한건 아닌데 그래도 아버지는 웬지 편해보입니다. 어쩐지 잘사는것 같고 번뇌나 고통 같은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욕심도 증오도 없는 아버지 얼굴은 정말 부처님 표정만큼이나 자유롭고 평화롭지요.

남들보다 잘 살아보려고 아득바득 애를 쓰다가 정작에 지친 날이면 그래도 기대고싶은것은 동북의 어느 시골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사는 당신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신경을 도사리고있다가 갑자기 모든 부장에서 해탈되고싶은 충동을 느끼는것도 한결같은 당신이 있기때문입니다. 제일 쉽게 감염되고 제일 쉽게 닳아가는 당신의 얼굴, 역시 저는 당신의 딸임에 틀림없는가봅니다.